

대구주보

친교로 하나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연중 제6주일
2023. 02. 12. (가해) 제2361호



3대리구 유천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제 1 독 서 집회 15,15-20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제 2 독 서 1코린 2,6-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마태 5,17-37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
지 않으셨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고집과 신념



교구 소림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7년 전쯤, 자고 일어나니 왼쪽 발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붓기는 없었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겠고, 양말도 못 신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의사가 와서 보더니 정말 큰소리로, “통풍이네, 통풍! 신부님! 매일 술 먹죠? 신부님들은 술 좋아하시니까! 이거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마셔서 그래요!”라고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와 의사를 바라봅니다. 엄청 민망하고 부끄럽고, 무엇보다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주 7일 근무를 하며 ‘제발 좀 쉬고 싶다’라는 혼잣말을 입에 달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은 둘째치고, 간단한 식사 자리조차 갖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어떤 연유가 있는지, 최근 무슨 이유로 통풍이 생겼는지, 상황에 대해 질문하거나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아예 없더군요.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해석보다는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토대로 하여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기 입장에서만 받아들여 그렇게 확신해 버리는 사고의 편향을 말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런 편향의 이유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의 축적인 선입견이 고착되면 고집이 되고, 고집으로 인해 불통(不通)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리석은 판단, 지혜롭지 못한 관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말합니다.”(1코린 2,6) 지혜를 말해도 안 듣습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말을 나누는 소통의 장마저 차단됩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율법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의미는 희석되고 형식과 틀, 체면과 익숙함, 편안함과 안정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타성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사랑의 새 계명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본질을 안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인’이라는 자의(字義)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해쳐서는 안 된다. 매 미사에 참례하고 고해성사를 열심히 받기 전에 성체께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원망을 품게했다면 화해해야 한다.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7)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끊임없이 조심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피하는 것보다, 어쩌면 ‘나’ 속 깊은 곳에 잔뜩 뿌리를 틀고 있는 신념이라고 착각하는 고집, 사랑 없는 믿음, 목적 없는 소망으로 단단해진 편향과 고집불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필문**

내 머리는 골무 스타일

교구 문화홍보국 차장 | 이재근 레오 신부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항상 명절 때가 되면 미용실에 갑니다. 친척들에게 단정하고 예쁘게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신자가 아닌 친척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톨릭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던 곳이 아닌 친구가 소개해 준 비싼 미용실에 갔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이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즐비했고 입구에서부터 자리에 앉기까지 에스코트도 받았습니다. 직원이 제 겁옷을 받아줄 때는 눈물까지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담당 디자이너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세상 흐름에 많이 뒤쳐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용실을 나선 후 곧바로 대학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개강하고 두 번째 만남이라 학생들과 친분을 쌓지 못했던 저는, 2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했지만 명절 기념으로 강의를 일찍 마쳐주고 학생들에게 점수도 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친하지도 않아서 서먹했던 학생들이 제 머리를 보고는 대놓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친할머니가 바느질할 때 쓰는 골무 같다고 했습니다. 골무가 무엇인지 몰랐던 학생들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더니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두 시간 딱 채워서 강의를 해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청거리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웃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화를 내면 하루 종일 끔뎁습니다. 모든 기준이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주위 반응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서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하지만 정도만 나아질 뿐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하느님께 합니다. 시시콜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위로를 받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달라진 것 없이 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다고 저와 같은 성격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강한 마음과 자존감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파하고 흔들려도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속도의 차이일 뿐 분명 앞을 보고 있습니다. 혹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약하다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시며 속도가 늦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이 계시니까요. **필문**



신식민주의에 맞선 교황의 외침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넓은 열대우림 덕분에 아마존 다음으로 지구의 두 번째 허파로 불리는 “광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이지만 탐욕스럽게 약탈당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는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폭력에 시달려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땅이다. 킌사사 국제공항에서 수도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가득 메운 수많은 남녀노소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민주콩고와 아프리카 전역에 이같이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 교황 방문을 환영하는 콩고민주공화국 시민
(Vatican Media Divisione Foto)

1월 31일 민주콩고 대통령궁 정원에서 펠릭스 치세케디 칠롬보 대통령 곁에 앉은 교황은 폭력으로 얼룩진 민주콩고를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아울러 민주콩고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금 지적했다. “정치적 착취 이후 경제 식민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경제 식민주의도 동일하게 노예를 만들어 냅니다.” 교황은 이 같은 경제 식민주의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 자유와 자결권을 앗아가기 때문에 더욱 교활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황은 “역설적으로 이 땅의 부요함이 땅의 주민들을 ‘외국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한탄했다. “탐욕의 독이 이곳의 다이아몬드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경제 강대국들은 이 같은 현실 앞에서 종종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입을 다뭍니다. 이는 비극입니다.”

교황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산발적인 제3차 세계대전’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잇힌 분쟁을 떠올리고, 사람이 아니라 돈의 위상을 중심에 두는 “사람을 죽이는” 경제-금융 시스템이 초래한 결과를 상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 나라를 방문해 내전과 빈곤으로 시달리는 국민을 품어 안고자 했다. 교황은 킌사사에서 첫 연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대륙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찾을 자격이 있으며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민주콩고에서 손을 떼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손을 떼십시오! 아프리카의 목을 조르지 마십시오. 아프리카는 착취해야 할 광산이나 약탈해야 할 땅이 아닙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3년

이질에 걸린 카넬 신부의 이동

10월 8일 수요일

클러지만(Clergyman, 양복에 로만칼라를 하는 사제복장의 일종)을 했던 일본의 선교사들이 다시 수단을 입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10월 12일 일요일

새 선교사의 부임이 알려졌는데, 그는 생 디에(St. Die)교구의 루이 뤼카(Louis Lucas, 柳嘉鴻) 신부이다. 그의 형은 나와 함께 신부가 되었는데, 만주에서 2년간 포교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다.

10월 14일 화요일

나는 제18호 회람과 함께 「공소 회장의 의무」라는 책을 모든 회장들에게 보냈다.

10월 19일 일요일

전보로 통지를 받고 나는 카넬 신부에게로 가기 위해 4시 기차를 타러 떠났다. 교구에 혼자 있었고, 또 그에게 나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 하인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 나는 기차를 놓치고 소세 신부와 함께 6시 30분 기차를 탔다. 우리는 저녁 11시에 마산 본당에 도착했다. 카넬 신부는 아주 심한 이질에 걸려 있었다. 급히 그를 대구로 옮겨야 했다. 소세 신부와 나는 하인들의 방에서 잤는데, 이가 들끓었다.

10월 20일 월요일

여행은 힘들었다. 나는 “급행열차로 도착. 입원을 준비하십시오. 곧장 데리고 갈 것임” 이란 전보를 쳤다. 환자는 출발 전에 다량의 로다눔(laudanum)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을 피로 적시러 갔다. 순경이 이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섭리였다. 순경은 틀림없이 우리가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대구역에 내리니 신부들이 병원에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환자를 교구로 데리고 갔고, 즉시 의사를 부르러 페랑 신부를 보냈다. 격리소를 면할 수 없을 뻔했다. 마침내 한 일본인 의사가 병의 종류에 관해 순경을 속이면서 환자를 그의 병원에 수용하는 데 동의했다. 상황은 아주 심각했다. 만약 신부를 옮길 수 없었다면 그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의사는 주사에 기대를 걸었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복기가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바로 마산포 본당에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나의 성사 집행이 어긋나 버렸다.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본당만을 방문하기 위해 대구를 떠날 것이다. 봄에 첫 번째 본당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23년 상반기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 안내

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는 65세 이상 노년의 시기에 있는 분들이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 정 | 1차) 3. 8(수) 14:00 ~ 3. 9(목) 13:00, 한티 피정의 집
2차) 6.14(수) 14:00 ~ 6.15(목) 13:00, 한티 피정의 집
※ 1차 신청 마감일: 2.16(목), 2차 신청 마감일: 5.25(목)

대 상 | 65세 이상 남·여 / 선착순 45명(본당 단체 신청시 최소 2달 전 문의)

참가비 | 1인 65,000원

문 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3114

대학생 견진 교리반 개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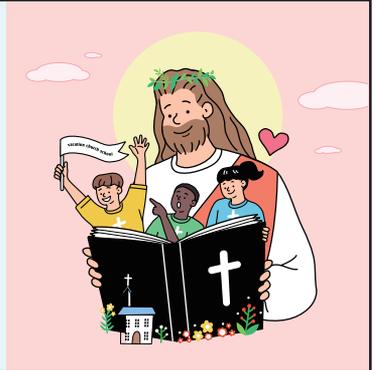
일시 | 3.9(목) ~ 5.25(목) 매주 목요일 18:00 ~ 20:00

장소 | 청년청소년국 대안동센터 4층 403호

(신청 인원내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상 |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교구 내 대학생, 대가대연 회원

문의 | 청년청소년국 학교복음화부, 053-264-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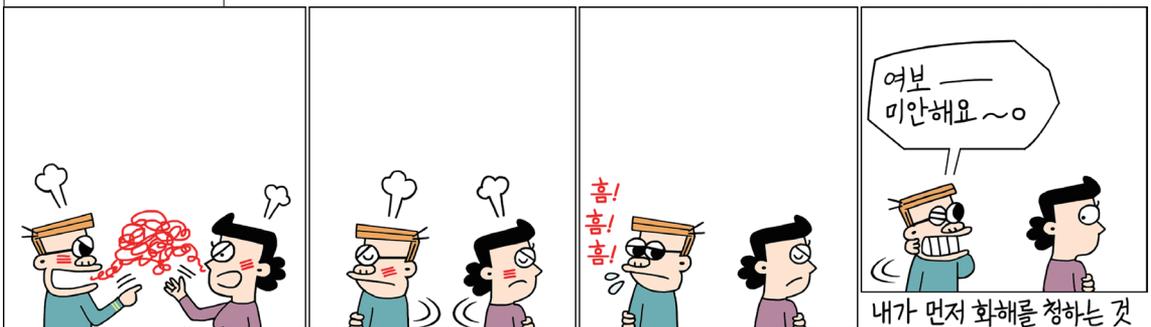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탄소발자국 줄이기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 농어민사목부 제공

사랑이란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13일(월) 10: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14일(화) 11:30 계산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3일(월) 11:0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2월 18일(토) 11:00 성모당

수도회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2.18(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성모술술 치유 소피정, 호소피정

1. 암 환우 치유 소피정 - 무료 휴양체험

기간: 2.18~23 / 3.18~23 (우울증 제외)

2. 호소피정 - 금액 15만원

기간: 2.16~19 / 3.16~19 (3박 4일)

문의: (010)3209-3955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463-5191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전례꽃꽂이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마리아 사제운동 2월 미사

일시: 2.18(토) 10:00 삼덕성당

목적: 1.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봉헌

2. 교황과 교회의 교도권에 순명·일치

3. 신자들을 봉헌생활어로 안내

문의: (010)9366-9170 / 공용주차장 이용

2023년 겨자씨성서 신입생 모집

개강: 3.2(목)

구약반: (목) 10:00, (목) 20:00

신약반: (금) 10:00, (화) 20:00

심화반: (월) 10:00, (수)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대구 베네딕도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체계적인 성경수업, 매 10:00, 19:30

모세오경(목 3.2 개강), 공관복음(화 3.7)

요한복음(수) 3.6 이해(월 3.6) 비대면 선택

장소: 베네딕도교육관(내곡로 123)

문의: (010)9809-3431 / (010)7185-3431

성 로베르토 웰-엔딩 연구소 기초강좌

일시: 3.6~6.26 매주 월 19:00~21:00

장소: 계산문화관 3층 본 연구소

내용: 죽음학·노년학 강좌 (16회)

강사: 최의정 신부 외

문의: (010)8597-801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

문의: 320-2120 / (010)7372-0076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봉사자 모집

분야: 치과 의사, 한의사, 위생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문의: 256-9494

<http://sungsim94.or.kr>

교구 외 | 기타 알림

목요신학강좌 트랙 III

주제: 세상을 다시 보다, 교회로 사는 기쁨

일시: 2.23~3.30 매주 목 19:30

강사: 정희완 신부, 주원준 박사 외 4명

수강료: 8만원(대면/녹화강의), 6강

문의: 한국CLC, (02)333-9898

미국 가톨릭보딩스쿨연합 학교 설명회

일시: 3.4(토) 15:00 (예약 필수)

대상: 초5~고2, 약 10개 학교 참여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회 미국학교법인

문의: (02)2258-8983

예수회센터 동영상 강좌(3월 개강)

영의 식별

삼위일체 하느님과 영적 성장

이미지를 통한 신비 탐구

가톨릭 사회교리

문의: <http://center.jesuits.kr>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밤·말·목·스포츠 질환)

모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능침방향 100m)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산부인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

건강검진센터 | 응급실 24시 운영
대구 복우 종합 병원 본관 3층

진료 예약 및 문의 | ☎ 053) 320-2500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24년 전통
국제 **리스트리결혼정보**

결혼행복 채널 '리스트리TV' 운영
대구신문 결혼기고 / 달서구청 결혼장려 추진 위원
MBC 외 방송 다수 출연

수산나 이현숙 박사의 **결혼하는 방법** 책 출간
M. 010.6571.3385

신랑각시결혼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이원교(요안나) | 30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국내·제주 성지순례 모집

2.27(월)~3.02(목), 3.10(월)~3.12(수)
3.13(월)~3.15(수), 3.28(화)~3.31(금)

6명 이상 매일 출발

한국성지167순례 모집
3.17(금)~19(일) 수원교구 3일(대구출발)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최시동(세례자 요한) 신부
2020년 2월 12일

교구 | 대리구 알림

2023학년도 예비신학생 등록 안내

기간: 2.12(일)~26(일)까지
대상: 중1~고3대학일반 / 등록비: 3만원
문의: 본당사무실(매년 갱신 필수, 입시반은 1년간 개근해야만 대신학교 지원 가능)
개학 미사: 3.5(일) 14:00 신학교 대성당

본당 복음화위원 연수

일자: 2.28(화)~3.1(수) (1박 2일)
장소: 사수동 베네딕도 영성관
대상: 복음화위원 또는 구역장(최대 2명)
신청마감 : 2.17(금) 17:00 / 3만원
문의: 교구 사무국, 250-3056

48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일자: 3.9~4.27(매주 목, 7주)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
대상: 모든 어머니
마감: 2.27(월)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제19차 비다누에바 신청

일자: 3.10(금)~12(일)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
대상: 25~39세 청년

정원: 24명 / 2.13(월)부터 신청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가톨릭성서모임 성서공부 안내

1. 그룹공부반: 첫모임 3.23 11:20(교구청)
2. 성서사십주간(성경전체 통독+강의)
일자: 4.12~ 24.2.28(매주 수) 20~22시
방법: 온라인(실시간), 오프라인 병행
문의: (010)9610-5366 / 연회비: 6만원

경산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제출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경산성당, 813-0516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대구가톨릭음악원 제34기 연구생 및 전공반 모집

개강: 3.4(토) 10:00
문의: 255-484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신앙여정, 그림책감정수업, 칼림바, 문학과 신앙, 가야금, 포슬린아트, 가곡성가, 발성법, 우쿨렐레, 난타, 제대꽃꽂이, 정리수납전문가, 장구,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길 108
내용: 1인 1실 사육
공동기도 생활
대상: 65세 이상 생활 가능한 기초수급자

문의: (054)954-1824

제16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일자: 3.29(수)~30(목) 9: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병원 3층 데레사홀
마감: 3.15(수) / 2만원(중식, 교재)
대구은행 248-05-000016-5(대가대병원)
문의: 650-2642, 3431

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모집

대상: 초3~중1(23년도 기준)
마감: 2.28(화)까지
문의: 담당사제, (010)3127-8188

필리핀 성인 실버 영어연수 모집

기간: 2월 출국(4주 이상)
특징: 학비 일부 지원 사업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화상영어 모집중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14 성모발현지(유럽 4개국) 12일 415만원
3.14 베트남 5일 139만원
3.22 일본 4일 125만원
4.12 이스라엘 9일 435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장례지도사국가자격취득반 모집

개강: 3.10(금)
교육: 금(18:30 ~ 22:20)
토,일(13:30 ~ 21:50)
자격: 19세 이상 누구나(학력 무)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010)2754-4404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개원 38년
달성피부과
●아토피·여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실리프팅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민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대구연세인간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인공전문의 서재신 (베드로) · 장주현 (바버라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메타워 4~6층
☎ 053) 626-8881~5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름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올리나나)
배대옥(임파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테로라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